

2020-제3호 카드뉴스

쉽게 읽는 인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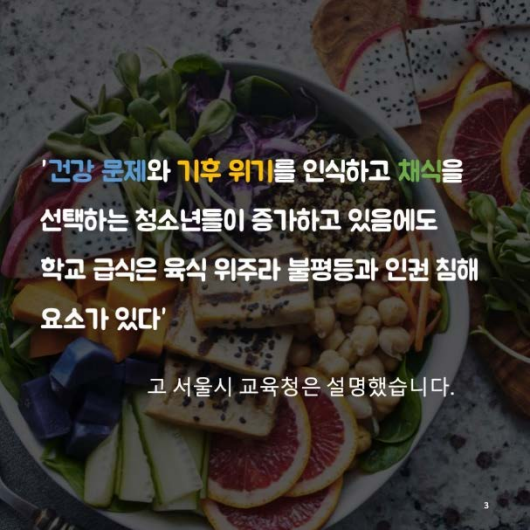
채식 선택권도 인권이다

윤리적인 식습관을 실천할 권리,
비건과 비거니즘,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박지희 | 연세 인권 앰배서더 3기

서울 학교들의 급식에
채식 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에 따라 채식선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건강 문제와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 급식은 육식 위주라 불평등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고 서울시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왜 **채식** 선택권이 필요하고
기존의 급식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3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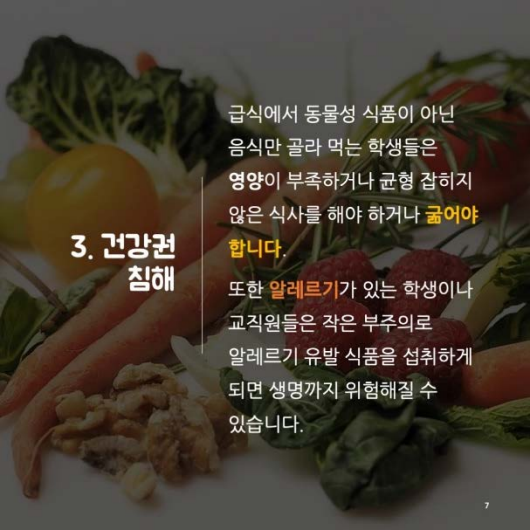
1. 행복추구권 - 사회적 소외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해야하는 학생들은 따로
도시락을 싸와야 해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 번거롭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어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2. 개인의 선택의 자유

현재의 육식 위주의 급식은
개인의 자유, 신념에 따라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3. 건강권 침해

급식에서 동물성 식품이 아닌
음식만 골라 먹는 학생들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하거나 **굶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작은 부주의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급식에 채식 선택제가 도입된다면

채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동물 착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식선택제가 모든
학교에서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를
이 높은 학교를 우선 시범학교
로 선정하고 다른 학교로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게시물에
내용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제3호 카드뉴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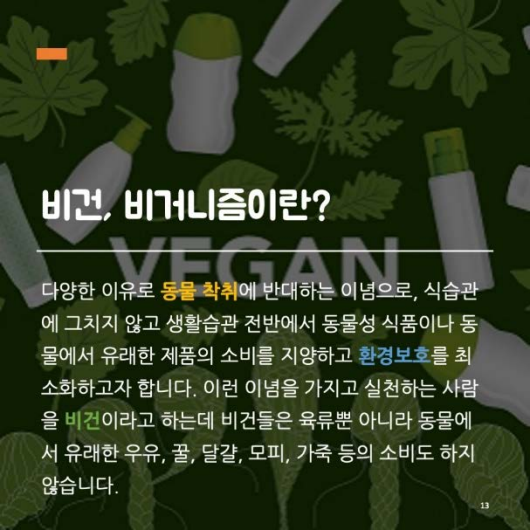
이전 게시물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게시물을 읽지 않았다면 이전으로
돌아가 읽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채식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식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로, 100~1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 더 엄격한 채식을 하는 **비건** 인구도 약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건, 비거니즘이란?

다양한 이유로 **동물 착취**에 반대하는 이념으로,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생활습관 전반에서 동물성 식품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의 소비를 지양하고 **환경보호**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하는데 비건들은 육류뿐 아니라 동물에서 유래한 우유, 꿀, 달걀, 모피, 가죽 등의 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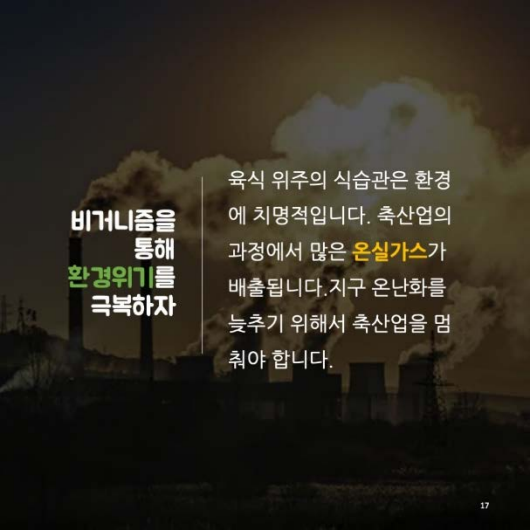


공장식 축산의 비윤리성

공장식 축산업은 동물을 객체화
하며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
합니다. 또한 인간은 육식을 하
지 않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
서 육식은 비윤리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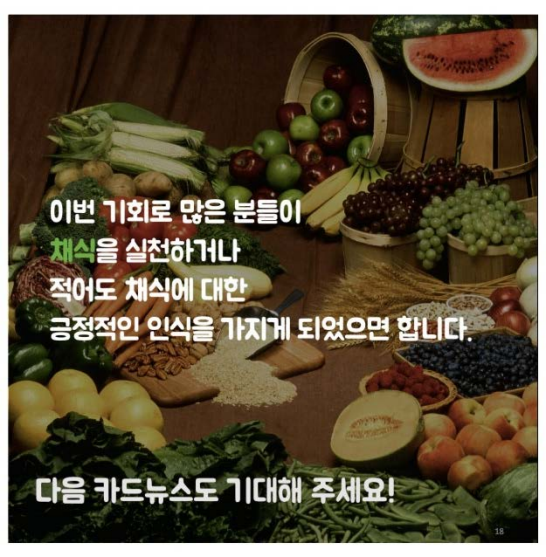
채식과 건강

교육청은 “지나친 육식은 소아비만, 소아당뇨, 면역계 질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음이 여러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비거니즘을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하자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환경
에 치명적입니다. 축산업의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축산업을 멈
춰야 합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채식을 실천하거나
적어도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카드뉴스도 기대해 주세요!